

**【키비 호족의 영광을 추구하고】**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.

이번엔 고대 꿈을 불태운 이야기입니다.

고대 일본의 역사를 보면 「위지왜인전」에도 기술되어 있고 여러분에게도 친숙한 야마타이국의 야요이 시대가 3세기. 그 후는 중국의 사서에 왜국에 대한 기술이 없어 상세한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공백의 시대로 들어섭니다만, 이 시기에 크게 활약한 것이 키비호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오카야마시 기타구 신조시모에는 5세기 전반의 키비를 지배한 왕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는 츠쿠리야마 고분이 있습니다. 전체 길이는 약 360m로 천황의 묘로 지정되어있는 3개의 고분을 제외하고 일본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6개 있는 그 바이즈카중 하나가 이번에 조명하는 센조쿠 고분입니다.

센조쿠 고분은 발굴 조사에서 전체 길이 약 80m의 전방후원분인것이 분명하고 석실 내에 초코몬이라는 장식이 특징적인 석장 (돌 칸막이)에는 구마모토현 아마쿠사 주변밖에 생산되지 않는 사암으로 석실 벽에는 카가와 현에서 생산되는 안산암이 이용되고 있습니다.

즉, 이 석실은 중국 그리고 큐슈, 시코쿠로 광범위한 범위 내의 여러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며, 키비 호족이 서일본 일대의 제일의 호주였던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.

저도 초봄에 석실 안에 들어가 벽이나 석장 등을 직접 접하고 5 세기에 균림하고 있던 키비왕을 생각하며 많은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.

그리고 이번에 이 귀중한 센조쿠 고분을 내년부터 4 년간에 걸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.

이것은 봉분 위에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찰흙으로 만든 인형의 복제본을 50 기 정도 나열하고 봉분에 오를 산책로를 마련 하는 외에도 후원부에는 터널을 마련하고 석실 내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키비가 가장 빛났던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당시의 모습을 되찾고 진정한 키비지의 모습을 직접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두근두근 해웁니다.

가능한한 이후 츠쿠리 고분 자체의 발굴도 시급하게 진행하면서 당시 사건을 기록한 목간이라도 출토된다면 좋겠습니다. 거기에 고대 일본의 역사의 공백 시대인 4 세기에서 5 세기의 상황이나, 키비왕이 서일본을 확보하는 모습이 적혀 있으면 . . .